B

보아스논술 · 대학기출 첨삭연구소

BOAZ ESSAY · COMPARATIVE CASEBOOK

다른 학생 비교첨삭

다른 답안의 감점 순간과 득점 순간을 비교해 내 답안을 다시 보는 학습 리포트

STUDENT

김보아 학생

첨삭 단계	1차 답안 첨삭	**기준**	평가형 글쓰기 · 문항 1
현재 점수	91 / 100	**답안 경쟁력**	91점 · 상위권 답안

REPORT GUIDE

60·70점대 감점 순간과 합격권 답안의 득점 순간을 비교합니다.

첫 답안 첨삭 → 둘째 답안 재첨삭 → 최종 제출본 완성

발행 2026.10.05 · REPORT d5aecb67

CASE 01 · 감점 순간

60점대 감점 사례

65점 · 동일 SET 재구성 학습 사례

전체 답안 · 〈문제1〉

제시문 (가)의 경제적 관점은 선택의 득과 실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은 선택으로 포기한 대안 가운데 가장 큰 가치이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 진학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진학은 합리적이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는 1990년 174.6에서 2005년 154.9로 줄었다. 이는 대학 진학으로 얻는 임금상의 이익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뜻이다. 한편 대학등록금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올랐고, 대학 교육의 수준과 경쟁력은 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대학 진학의 명시적 비용은 커졌고 편익은 낮아졌다.

제시문 (다)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2009년 77.8%에서 2012년 71.3%로 하락하고,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3.3%에서 29.3%로 상승했다. 이는 대학 진학의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진학률의 하락은 합리적인 현상이다. 대학 진학의 비용은 커졌지만 대학 교육의 질은 낮고, 임금상의 이점도 줄었기 때문이다.

감점 순간	“이는 대학 진학으로 얻는 임금상의 이익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뜻이다.”
왜 점수가 갈리나	임금격차 지수 174.6에서 154.9로 하락한 자료는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했다는 뜻이므로, 대학 진학의 편익이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장은 대학 진학의 암묵적 비용인 ‘진학하지 않고 취업했을 때 얻는 고졸 임금’이 커졌다는 연결을 빠뜨렸다. 또한 ‘학생들이 취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단정해, 자료가 보여 주는 동시적 변화와 개인의 선택 원인을 구분하지 못했다.
내 답안에 적용	자료의 수치를 해석한 뒤 반드시 ‘대학 진학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고졸 취업 임금’처럼 기회비용의 구체적 대상을 밝혀라. 통계의 동시적 변화는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합리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결하라.

CASE 02 · 감점 순간

70점대 감점 사례

74점 · 동일 SET 재구성 학습 사례

전체 답안 · 〈문제1〉

제시문 (가)는 경제행위가 선택이며, 선택의 합리성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이고, 대학 진학의 경우 등록금 같은 명시적 비용과 취업을 포기하여 잃는 임금 같은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다.

제시문 (나)에서 학력별 임금격차 지수는 1990년 174.6에서 2005년 154.9로 감소했다. 따라서 대학 졸업이 고졸 취업에 비해 제공하는 상대적 임금 편익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대학등록금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랐으므로 명시적 비용은 증가했다. 등록금이 올랐음에도 대학 교육의 수준과 경쟁력이 OECD 하위권이라는 점은 대학 진학의 편익이 충분히 커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결국 대학 진학의 편익은 약해지고 비용은 커졌다.

제시문 (다)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7.8%에서 2012년 71.3%로 3년 연속 하락했고, 고교 졸업자 취업률은 2011년 23.3%에서 2012년 29.3%로 상승했다. 따라서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현상은 (나)의 조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진학률과 취업률의 변화만으로 모든 학생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점 순간	“결국 대학 진학의 편익은 약해지고 비용은 커졌다.”
왜 점수가 갈리나	임금 프리미엄 감소, 등록금 상승, 대학 교육의 낮은 경쟁력을 각각 편익 감소와 명시적 비용 증가에 연결해 기본적인 분석 구조를 갖추었다. 그러나 고졸 취업을 선택할 때 얻는 임금이 대학 진학의 암묵적 비용이라는 점을 자료의 수치와 직접 연결하지 않았고, (다)의 통계 기준이 2010년까지의 합격자 기준에서 실제 입학생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비교상의 주의점도 빠졌다. 따라서 방향은 맞지만 자료의 조건까지 닫은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다.
내 답안에 적용	‘자료의 변화→경제적 의미→대학 진학의 편익·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의 세 단계를 모두 써라. 진학률 추세를 평가할 때는 통계 산출 기준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하라.

CASE 03 · 합격 순간

합격권 사례 A

86점 · 동일 SET 재구성 학습 사례

전체 답안 · 〈문제1〉

제시문 (가)는 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기회비용은 선택으로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이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제시문 (나)의 학력별 임금격차 지수는 1990년 174.6에서 2005년 154.9로 낮아졌다. 이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얻는 상대적 임금 편익이 1990년에 비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대학 진학을 선택하면 고졸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하므로, 고졸 임금에 비해 대졸 임금의 우위가 줄어든 것은 대학 진학의 암묵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증가해 명시적 비용을 키웠다. 반면 높은 등록금에도 대학 교육의 수준과 경쟁력이 OECD 하위권에 머물러 대학 진학의 편익은 충분히 커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의 대학 진학률 하락과 고교 졸업자 취업률 상승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 진학의 임금상 편익은 감소하고 등록금과 취업 포기의 비용은 커졌으며 교육의 질도 낮기 때문이다. 다만 진학률은 2010년까지 합격자 기준이었다가 이후 실제 입학생 기준으로 바뀌었으므로, 3년 연속 하락을 단순히 동일한 기준의 변화로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합격 순간	“대학 진학을 선택하면 고졸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하므로, 고졸 임금에 비해 대졸 임금의 우위가 줄어든 것은 대학 진학의 암묵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점수가 갈리나	임금격차 지수 174.6에서 154.9로 낮아진 사실을 단순한 격차 축소에 그치지 않고, 대학 진학 시 포기하는 고졸 취업 임금과 암묵적 비용의 관계로 설명했다. 등록금 상승은 명시적 비용, OECD 하위권 교육 수준은 편익 감소로 연결하여 (나)의 세 자료를 모두 활용했다. 또한 (다)의 통계 기준 변경을 언급해 진학률 하락을 과도하게 단정하지 않았다.
내 답안에 적용	수치가 가리키는 경제적 의미를 ‘무엇을 포기하는가’와 연결해 암묵적 비용을 구체화하라. 마지막에는 결론을 유지하되 통계 기준 변경이나 자료의 한계를 한 문장으로 점검하라.

CASE 04 · 합격 순간

상위 합격권 사례 B

93점 · 동일 SET 재구성 학습 사례

전체 답안 · 〈문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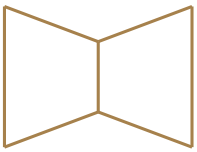
제시문 (가)에 따르면 경제행위는 선택이며, 합리성은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 판단된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로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학 진학의 합리성은 등록금뿐 아니라 진학 기간에 포기하는 취업 임금과 대학에서 얻는 교육·임금상의 편익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나)의 임금격차 지수는 1990년 174.6에서 2005년 154.9로 하락했다. 2005년에도 대졸 임금이 고졸보다 54.9% 높지만, 그 상대적 우위는 과거보다 작아졌다. 그러므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졸 취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임금에 비해, 진학 후 추가로 얻는 임금 편익은 감소했고 진학의 암묵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학등록금이 1990년 이후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것은 명시적 비용의 증가를 뜻한다. 더구나 등록금 상승에도 대학 교육의 수준과 경쟁력이 OECD 하위권에 머문다는 점은 추가 비용에 비해 교육 편익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다만 최근 경제위기 동안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았다는 대목도 있으므로, 등록금 부담이 모든 시기에 같은 속도로 커졌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서 (다)의 대학 진학률이 2009년 77.8%에서 2012년 71.3%로 하락하고 고교 졸업자 취업률이 2011년 23.3%에서 2012년 29.3%로 상승한 현상은 평균적인 경제적 유인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 진학의 상대적 편익은 줄고 명시적·암묵적 비용은 커졌으므로 취업 선택의 기회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대학 합격자 기준, 이후에는 4월 실제 입학생 기준으로 진학률을 산출했으므로 하락 폭 전체를 동일한 기준의 변화로 확정할 수 없고, 개인별 능력과 장래 소득까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합격 순간	“대학 진학의 상대적 편익은 줄고 명시적·암묵적 비용은 커졌으므로 취업 선택의 기회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왜 점수가 갈리나	이 문장은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과 취업 선택의 기회비용을 구분해, 어떤 선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54.9%라는 현재의 임금 우위와 174.6에서 154.9로의 변화, 등록금의 장기 상승, 교육 수준의 하락을 각각 비용·편익에 연결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률의 예외와 진학률 산출 기준 변경, 개인별 선택에 대한 자료의 한계까지 제시해 통계에서 가능한 결론의 범위를 정확히 제한했다.

내 답안에 적용	'누가 무엇을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인가'를 먼저 정한 뒤 편익·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을 각각 자료에 대응시켜라. 결론 뒤에는 예외 수치와 통계 기준 변경처럼 자료가 결론을 제한하는 조건을 함께 써라.



좋은 답안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글이 아니라, 문제의 요구를 빠짐없이 끝낸 글이야.

BOAZ 공부노트

